

# 지역민 위한 '選良' 역할 충실하길



데스크칼럼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kwonbeom.choi@jnilbo.com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린지 2주가 지났다. 이번 총선 민심은 그야말로 매서웠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지나고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민심은 무능·무책임·고집불통 정권에 회초리를 휘두르며 국정운영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총선 결과, '정권심판론'의 우세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벌써부터 정치 지형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거대 야당의 요청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고, 정부 여당도 부랴부랴 인적 쇄신을 나서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청색바람'은 당초 예상보다도 거셌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선 18곳 지역구를 모두 싹쓸이했다. '청년 정치인'부터 '정치9단 올드보이'까지 민주당 후보들 모두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의도 입성을 알렸다.

이번 총선을 통해 광주·전남에선 대부분 현역 물갈이가 이뤄졌다. 교체율은 광주 88%(8명 중 7명), 전남 50%(10명 중 5명)에 달했다. 지역 현안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렇다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현역 의원들을 바라보는 지역민심의 '바로미터'였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새로운 대안정당에 대한 정치적 기대감이 표출되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앞선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 배경에는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과 검찰개혁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제시한 점이 주효했지만, 지역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적 지지 여론도 깔려 있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호남의 정치구도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비례만큼은 조국혁신당이라는 대안정당에 표심이 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도 언제든지 민주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제 다시 지역 정치권은 새 진용을 꾸리게 됐다. 18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당선인들은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인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전문예술극장 건립 추진 △광주 도시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이다. 전남지역 공약으로는 △보건의료 기반 및 첨단전략산업 확충 △AI 최첨단 미래농업 선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거점 육성 △해양·문화·생태 관광 중심지 조성 등을 내걸었다. 지역 당선인들은 22대 총선 압승을 발판삼아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들 공약의 차질없는 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초선 일색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호남정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만큼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민과의 스킨십을 늘려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호남을 넘어 전국을 대변하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의와 명분을 중시했던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다른 말로 국민의 '선량(選良)'이라고 한다. '가려서 뽑힌 뛰어난 인물'이라는 의미다. 지역 유권자들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되살려주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선인들을 선택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부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몸을 바짝 얹었던 초심을 잊지 말고, 선거운동 기간 내세웠던 구호가 빛을 바래지 않길 바란다. '선량'의 의미와 그 역할을 가슴속 깊이 새겨 오로지 지역민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 社說

### 분열 멈춘 5월단체, 계승·발전 뜻 모아야

#### 44주기 5·18 앞두고 내용 펼쳐

특전사회 초청 행사로 갈라선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44주기 5·18 민간행사를 기점으로 다시 하나로 뭉친다. 장기간 갈등으로 광주시민들께 피로감을 안겨준 만큼, 5월 단체는 깊은 사과와 갈등 해소를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제44주기 기념 행사부터 시민을 모시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심려를 끼쳤던 지난 일들에 대해 사과도 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결의했다. 공로자회내용이 새 집행부 구성에 따라 일단락 수순으로 접어든 데다 5·18을 불과 3주 앞둔 상황에 해묵은 갈등을 일단락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5·18 단체들과 시민 사회는 지난해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주최한 특전사동지회 초청행사에서 비롯된 갈등

을 겪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해 2월 19일 특전사회를 초청해 '화해와 용서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가해자인 특전사들이 5·18 피해자들을 찾아 사죄하는 자리를 마련, 5월 정신 계승에 함께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시민 단체들은 지역 사회 속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된 행사의 성격을 지적하고 특전사회 간부진이 행사에 앞서 국립5·18민주묘지를 기습적으로 참배한 내용에 반발했다. 이후 고소·고발 등으로 격화되기도 했다.

5월 단체 간 내용이 시민사회단체로까지 번진 갈등은 5월 영령 앞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겼다. 80년 당시 하나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냈던 '대동 정신'을 외면한 분열은 앞으로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책과 충분한 논의 체계도 갖춰야 할 것이다. 광주는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 전국화·세계화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수도룩하다. 5월 단체, 시민단체는 갈등과 내홍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로 뽕뽕 뭉쳐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큰 그림' 필요한 국도 1호선 기점 변경

#### 해남군, 땅끝 변경안 추진

해남군이 목포 충무동에서 시작되는 국도 1호선 기점을 땅끝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시작인 '땅끝' 해남에 대한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국도 균형발전의 의의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해남군의 설명이다. 땅끝에서 시작된 국도 1호선을 타고 평안북도 신의주까지 내달리겠다는 해남군의 '큰 그림'을 응원한다.

현재 국도 1호선은 목포에서 판문점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까지를 잇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로다. 길이도 대한민국 도로 가운데 가장 긴 943.37km에 이른다. 국도1호선 기점은 1911년 개통 당시 목포 유달산 아래 과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지난 2012년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목포 대교 종점인 충무동 고하도로 시작점이 변경됐다. 현재 기점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 중으로,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 기점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도 1호선을 땅끝까지 연장하는 것은 해남에 산재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전국에 알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킬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초석도 다질 수 있다. 완도와 진도, 강진, 장흥 등 전남 서남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전남은 대한민국 농·축·수산물물의 주산지다. 풍부한 먹거리를 원활하게 수송하는 도로는 '농도 전남'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남과 신의주를 잇는 남·북 물류 교류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도 크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추진 의지를 기대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남 서남해안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전남도, 각 자치단체가 의지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국도 77호선의 미연결 구간인 해남 화원-신안 압해간 연결과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경전선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도 1호선의 땅끝 연장이 꼭 필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말 두 마리가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에 영국 근위 기병대 말 5마리가 인근 공사장 소음에 놀라 혼란장을 이탈, 도심을 질주하며 차량과 충돌해 최소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말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AP/뉴스

### 서석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사업보국을 위한 사명감이다." 1974년 12월,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이 집적회로용 웨이퍼 제조공장인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반도체가 막 태동되던 시기, 한국반도체는 반도체의 전 단계인 규소박판 가공 공정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단호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1966년 한국비료로 최대 위기에 놓였던 삼성에게 한국반도체는 손실과 굴욕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 회장의 회고다.

이 회장의 생각은 적중했다. 삼성전자는 한국반도체가 생산한 칩으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창업 8년만에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금성사를 앞지르고 국내 전자산업의 정상에 올랐다. 1977년에는 주력 제품이던 '이코노 TV'가 300만대 생산을 돌파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모래에서 완제품까지'를 모토로 일관공정도 완성시켰다. 1978년에는 흑백 중심의 TV시장에서 벗어나 컬러TV의 시대도 열었다. '신기술 개발에서는 한국반도체를 가진 우리가 경쟁사에 비해 월등했다'는 게 당시 삼성전자를 이끌던 강진구 사장의 이야기다.

본격적인 반도체 생산에도 나섰다. 70년대 말까지 메모리 칩 생산에 머물렀던 삼성은 1983년 이근희 전 회장이 삼성전자의 경영을 맡은 후 국내 최초로 8000자를 기억하는 64K DRAM 메모리를 개발했다. 10년 뒤인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한글 400만 자를 기억하는 64M DRAM을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문화재청도 지난 2013년 64K DRAM을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했다. '집적회로의 실용화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이를 가속화 시켰다'는 게 문화재청의 평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24일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 9세대 V낸드' 양산에 돌입했다. 이번에 개발한 9세대 V낸드는 업계 최소 크기의 셀과 최소 두께를 구현해 데이터의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1.5배 늘렸다고 한다.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도 33% 늘어난 3.2Gbps에 이른다. 올 하반기에는 하나의 셀에 4비트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QLC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계획이다. 웨이퍼를 가공해 반도체와 비슷한 칩을 생산한 지 올해로 꼭 50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삼성의 '사업보국'을 위한 반도체 신기술 개발이 듬직하고 미덥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